

사사기 개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방 문화가 그들의 신앙과 행실에 스며들어 타락, 압제, 구원의 순환이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사사: 사사기라는 책 제목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1) 사사들은 유사시에 전투 지도자로서, 평화시에는 통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2) 사사는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고통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서 건져 내시려고 하나님이 쓰신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사사기 3:10),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6:34) 등과 같이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사사들의 모습은 다양하였지만 사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사사기 2:18).

2. 주요 내용: 사사기 2: 11-23 이 진술하고 있듯이 타락, 압제, 구원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1)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ㄱ. 우상 숭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행하신 일들을 잊고 이방 민족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압제 아래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 11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12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13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사사기 2:11-13).

-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사사기 2:17)

ㄴ.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 21:25)는 마지막 구절이 보여 주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2) 부르짖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ㄱ. 하나님은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사사기 3:9)와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사사기 3:11)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3) 이전의 죄악으로 되돌아가는 이스라엘

ㄱ. 사사를 통해 이방 민족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평온하게 지내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악한 일로 되돌아 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사사기 3:12)와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구성

1) 사사 시대에 대한 개괄: 1-2 장

2) 12 사사들의 활동:

ㄱ. 옷니엘: 3:7-11

ㄴ. 에훗: 3: 12-30

ㄷ. 삼갈: 3:31

ㄹ. 드보라: 4:1-5:31

ㅁ. 기드온: 6:1-8:35

ㅂ. 도라: 10:1-2

ㅅ. 야일: 10:3-5

ㅇ. 입다: 10:6-12:7

ㅈ. 입산: 12:8-10

ㅊ. 엘론: 12:11-12

ㅋ. 압돈: 12:13-15

ㅌ. 삼손: 13:1-16:31

3)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죄악:

ㄱ. 종교적 타락: 17:1-18:31

ㄴ. 도덕적, 사회적 타락: 19:1-21:25

